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21년 8월 조사 -

2021년 9월 3일
주식회사데이터코쿠데이터뱅크 데이터솔루션기획부
https://www.tdb.co.jp
경기동향온라인 https://www.tdb-d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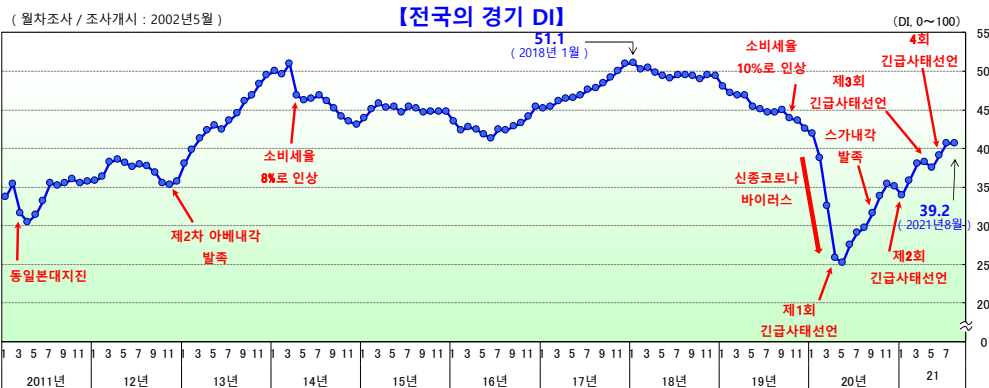
감염자수 급증으로 경기에 급제동

~ 호우 및 장마의 영향도 내림세 압력, 개인소비와 관련된 침체가 커 ~

(조사대상 2만 4,458사, 유효회답 1만 1,170사, 회답율 45.7%,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1년 8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1.5포인트 감소한 39.2로 3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감염자수 급증에 기록적인 폭우의 영향도 더해져 일시적인 답보상태가 되었다. 향후는 긴급사태선언 등으로 일시정체하나 완만한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 10개 업계 중 『기타』를 제외한 9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긴급사태선언·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의 영향 및 각지에서 계속된 악천후로 특히 개인소비와 관련된 업종이 크게 침체하였다. 또한 자동차 공장에서 감산(減産) 및 가동정지가 나타나는 가운데 『제조』도 3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 전 10개 지역이 3개월 만에 모두 악화되었다. 긴급사태선언 및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가 33개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 확대·연장된 가운데 40개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 악화되었다. 사람의 움직임이 다시 억제되어 개인소비와 관련된 침체가 눈에 띄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중소기업」「소규모기업」 모두 3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 2021년 8월의 동향 : 일시적으로 답보 >

2021년 8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1.5포인트 감소한 39.2로 3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8월의 국내경기는 긴급사태선언 및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에 관하여 33개 도도부현(都道府県)으로 확대 및 연장이 실시됨과 더불어 호우·장마로 인한 영향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사람의 이동 억제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소매업 및 개인 서비스업 등의 개인 소비 관련이 다시 크게 침체하였다. 게다가 금속 및 목재, 반도체 등의 재료부족 및 가격급등은 기업의 수익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백신 접종 보급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외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및 호조인 반도체 관련, 교외에서의 주택구입 활발화 등은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국내경기는 감염자수 급증에 기록적인 폭우의 영향도 더해져 일시적인 답보상태가 되었다.

< 향후의 전망 : 일시 정체 후 완만히 회복 >

향후의 국내경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변이종의 동향이 최대의 우려요소가 될 것이다. 해외에서도 감염이 재확대 되고 있어 다시 수출이 감소로 돌아서면 큰 하락세 압력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원재료 등 사업가격 상승 및 반도체 부족과 더불어 정국의 동향 및 중동정세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의 업적회복에 대한 양극화 경향 확산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백신접종 보급과 함께 경제활동은 완만히 정상화 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비투자의 증가경향 외에 5G의 본격적인 보급 및 자택 내 소비 확대, 해외경제 회복, SDGs에 대응한 투융자 등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향후는 긴급사태선언 등으로 일시정체하나 완만한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